

오륙도평화축제 10월 19~21일 개최

자유·평화·화합 3대 키워드 30개 프로그램 ‘가을 성찬’

평화라디오 등 신개념 행사 눈길… 가수 홍진영 등 초청

부산의 대표 가을축제인 오륙도평화축제가 10월 19~21일 사흘간 유엔기념공원 인근 평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22회를 맞는 축제는 자유, 평화, 화합이라는 3개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세계평화특구 남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30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축제의 흥을 끌어올릴 평화공원 특설무대 메인 행사들이 사흘 동안 주제를 바꿔가며 주민 참여를 기다린다. 축제 첫날인 19일 평화음악회는 퍼레이드팀이 공원을 돌며 자유, 평화,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때 공연장 주위에는 아리랑을 주제로 플래시몹(특정 시간에 동시에 펼쳐지는 퍼포먼스) 행사가 열린다. 축제 이튿날인 20일은 관내 대학교 및 대학로와 연계해 청년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평화 유니브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국악, 클래식, 밴드 등 대학생 동아리팀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인다. 마지막 날에는 주민과 출연진이 한데 어울려 생활 속 스토리를 진솔하게 풀어내는 평화토크콘서트가 마련된다.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프로그램이 이번 축제에 처음 선보인다. 19일과 21일 오후에 개최되는 평화라디오는 공원 특설무대에 라디오 부스를 설치해 마치 라디오방송을 진행하듯 DJ가 주민들의 사연을 들려주고 신ington과 흥미로운 토크를 진행한다. 또 20일 열리는 오륙도평화가오제는 예상을 통파한 동네 가수들의 열띤 노래 경연을 펼친다.

이색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평화공원 중앙광장과 대연수목원을 연결하는 사잇길에 한국과 외국의 전통복장을 입어 보는 ‘그때 그 시절’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유엔평화특구 내 주요기관을 둘러보는 남구평화투어와 주민자치·평생학습·복지 등 다채로운 박람회 부스가 운영된다. 이밖에

■제22회 오륙도평화축제 행사

무대 행사	평화음악회, 평화퍼레이드, 오륙도평화가오제, 평화유니브페스티벌, 평화 토크콘서트, 평화라디오, 전통성년례, 평생학습 동아리공연, 주민자치동아리공연대회
체험 행사	남구평화투어, 특구홍보관, 그때그시절,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 복지박람회, 도로명주소체험관, 건강홍보관
전시 행사	평화사진전, 국화전시회, 시화전
부대 행사	버스킹공연, 부산시문화원연합회공연, 세계음식부스, 학생사진촬영대회, 세계진통공연, 찾아가는문화공연, 프리마켓, 먹거리부스, 남구백일장

시화전, 평화사진전 등 전시프로그램과 학생사진 촬영대회 등도 함께 열린다. 이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음식부스, 먹거리부스가 운영되며 세계진통공연과 부산시 문화원 연합회공연, 남구문화원의 찾아 가는 문화공연도 마련된다.

한편 대형급 초청가수들이 출연해 축제를 달군다. 첫날 19일에는 홍진영과 홍경민이 평화공원 특설무대에 올라 대표곡을 열창하고 20일에는 인디 밴드 로맨틱 판치가, 21일에는 플라워의 고유진이 무대에 오른다. ☎607-4062



오륙도평화축제 프로그램 안내 4면

파스함을 나눠 주세요

국내 유일 난방용품 지원 연합 모금사업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10월말까지 진행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남구 내 기관과 주민들이 힘을 모으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남구 내 6개 복지기관과 남구청,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동참하는 전국 유일의 민간협력 모금사업이다. 이들 기관 외에 남구 주민과 남구에 소재한 기업체 및 단체 등도 참여한다.

기부금 모금은 지난 8월에 시작해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구청, 동주민센터, 사업소, 복지관 등 관내 26곳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연합모금계좌(부산은행 315-13-000079-6, 예금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개설했다. 목표 모금액은 3000만원으로 목표액의 50% 이상 모이면 부산시 공동모금회에서 액수의 30%를 매칭 지원

한다. 남구는 모금액을 난방수급이 어려운 300세대를 선정해 가구당 난방유나 전기장판 등 10만원 상당의 겨울나기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모금에서는 주민과 사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목표액의 2.5배를 초과한 5143만원이 모여 캠페인을 조기 마감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 연합 모금 캠페인은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액기부문화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5년에 시작됐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등유 1리터 값인 1000원을 후원하는 소액 모금사업이었는데 남구청이 취지에 공감해 지난해부터 남구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했다.

☎607-4314

“답 없다면 문제를 뒤집어라!”… 남구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숙원 해결

아무도 풀지 못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려 문제 자체를 없앤 알렉산더의 패도난마 일화처럼 남구가 최근 발상을 바꾼 아이디어들로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콜럼버스의 달걀’에 비유되는 남구의 실험적인 정책들이 전국으로 퍼져갈 지 귀추가 쏠린다.



Egg of Columbus



“계급장 떼고 대화 합시다”

남구의 직원정례조례가 민선7기부터 구청장 및 간부와 직원간의 대화와 소통을 중요시하는 ‘타운 홀 미팅(조직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3월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직원 ‘타운 홀 미팅’ 모습.

☑ 남부면허시험장 주차장, 주민에 무료개방 추진

남구가 옹호종 일대의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설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차원에서 이뤄진 전국 첫 사례로 향후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남구는 부지 소유자인 부산지방경찰청

이르면 연말부터… 공공기관 주차장 공유 전국 첫 사례

과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주차장 주민 개방을 요청했고 지난달말 이들 기관이 “주민편의를 위해 기꺼이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방 주차공간은 시험장 입구 우측 주

차장 56면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공휴일(전일)에 한해 이르면 연말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남구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주차장 진입로 정비, CCTV 설치, 번호인식차단기, 출입방지센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남구청장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공기관 간의 협력과 아이디어만으로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거지 주차장 확대와 국공유지·소규모 공터 활용 등을 통해 남구의 주차 문제를 푸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짙은 섀팅 없애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막는다

점검반 편성… 차량 내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유도

남구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규정을 어긴 짙은 섀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달말 관내 어린이집에서 원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3세 어린이가 두 시간 가량 차에 갇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차량 내

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짙은 섀팅이 원인 이 된데 따른 조치다.

남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조사해 통학 차량의 짙은 섀팅을 벗겨 바깥에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집 교직원과 원아들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아동이 차량에 혼자 남은 경우를 대비해 운전석에 있는 경적을 울리거나, 비상경고등을 누르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도했다.

☑ 남구 도시재생사업, 주민의견 듣고 진행한다

현황 파악·의견 수렴 위해 사업 희망지역 전수조사

남구청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주민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는다. 이를 위해 남구는 9월 3일~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도시재생사업 희망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획일적인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향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는 크게 관내 도시재생사업 희망

지역 현황 및 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둔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내용 △추진 배경·필요성 △주민공동체 현황·사업 참여 의향 △유류부지 및 폐·공가 현황 △재해위험(노후·불량 건축물 등) 현황 △기초생활 인프라 및 문화시설 등 현황을

들여다본다. 재생사업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혹은 남구청 건축과 도시재생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남구 도시재생 관련 의견 제출처

대연1동 607-6604, 대연3동 607-6644,

대연4동 607-6662, 대연5동 607-6686, 대연6동 607-6704, 용호1동 607-6724, 용호2동 607-6742, 용호3동 607-6764, 용호4동 607-6782, 용당동 607-6802, 감만1동 607-6822, 감만2동 607-6842, 우암동 607-6862, 문현1동 607-6913, 문현2동 607-6922, 문현3동 607-6955, 문현4동 607-6964, 남구청 건축과 도시재생팀 607-4712

민선7기 100일 소통 위한 주민과의 만남

10월 8일 유엔평화기념관 3층 개최… 9월 21일까지 참석 신청

남구는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기념해 오는 10월 8일(월) 오후 3시 대연동 유엔평화기념관 3층 컨벤션홀에서 소통을 위한 주민과의 만남 행사를 가진다.

이날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각별 없는 소탈한 대화를 위해 참석 주민들이 사전질문지를 붙임판에 붙이면 남구청장이 직접 골라 답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9월 21일까지 남구청 기획감사실 기획팀(☎607-4011~2)이나 구청 안내데스크(☎607-4011~2)로 전화 혹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산·학·관 6개 기관 모여 남구경제 살린다

창업기업·일자리창출 지원 업무협약

남구가 창업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학 및 기업과 손을 잡았다.

남구는 지난 17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 부산은행, 경성대, 동명대, 부경대 등 5개반으로 편성해 24시간 근무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당직실, 재난안전상황실 외에도 도로보수원으로 구성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해 도로나 맨홀 파손 같은 긴급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1층 민원실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응급진료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10월 13일 이기대 걸어요”

제34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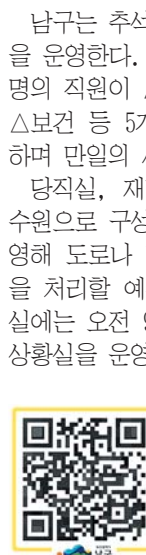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유유자적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제34회 오륙도사랑 걷기축제가 오는 10월 13일(토) 개최된다.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상부체육공원에 집결해 이기대순환도로~해파랑길관광안내소를 거쳐 백운포 체육공원까지 걷는 약 6km 코스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맞춰 체성분 측정부스와 국민체력100부스를 상부체육공원과 백운포체육공원에서 각각 운영한다.

☎607-4371

남구 추석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남구는 추석 연휴에 구청 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9월 22~26일 나흘간 총 339명의 직원이 △총괄 △정보 △재난 △교통 △보안 등 5개반으로 편성해 24시간 근무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의 끝모를 남구사랑

소외계층 태양광 설비·노후주택 개선에 2억5000만원 쾌척

5년간 18억원 남구 후원… 부산 전체 후원액 절반 남구 지원

문현금융단지 내 (주)한국남부발전(사장 이정식)이 남구 주민을 위해 또 다시 자금을 열었다. 남구 내 저소득 계층 100세대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 및 노후주택 주거환경 맞춤형 개선공사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부발전은 남구청과 지난 6월 이런 내용을 담은 ‘KOSPO 희망주택’ 지원사업 협약을 가졌다. 사업은

9~12월까지 남구 내 에너지 소외계층에 250W기준(설치비 80만원)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돕는다. 가정용 태양광이 설치되면 가구당 연간 6만원의 전기요금절감이 예상된다. 또 회사는 노후주택의 연탄·경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LED, 단열공사, 화장실 수리 등 주거환경 맞춤형개선사업도 돕는다.

지난 2014년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

■한국남부발전 남구지역 후원 실적

구분	남구	부산시 전체
2014년	1억7600만원	2억400만원
2015년	3억9500만원	8억3000만원
2016년	3억5000만원	9억9500만원
2017년	4억6900만원	11억3600만원
2018년(9월 현재)	4억300만원	7억1900만원
총액	17억9300만원	38억8400만원

제금융센터(BIFC)로 본사를 옮겨 온 남부발전은 남구 주민들을 위해 통근 후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교복지원사업, 난방비 지원, 집수리사업, 영재발굴, 에너지드림가 등 크고 작은 후원 사업에 5년간 모두 17억 9300만원을 집행했다. 이 액수는 회사의 부산시 전체 후원액(38억 8400만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다. 남부발전은 9월 기준으로 올해 4억원 이상을 남구 주민들을 위해 썼다.

